

# '광주 35곳·전남 50곳' 공공기관 유치전 나섰다

### 광주시, 내일 국회서 간담회...공공기관 불모지·뛰어난 인프라 부각 전남도, 지난달 국회서 토론회...농수산업·에너지 관련 기관 최우선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유치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양 시·도는 일단 공동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조성으로 한국전력공사를 유치한 1차 이전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 시·도 유치 대상 중 일부 기관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선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오는 9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관련 간담회를 열어 유치 전략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데이터진흥원, 공항공사, 문화관광연구원 등을 최우선으로 35곳을 유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기반을 활용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일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노조들이 불편한 정주 여건 등을 우려함에 따라 타 지역보다 뛰어난 교통·교육·문화시설 등 강점인 도시 인프라를 전면에 내세우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전남과의 공동 유치·조정 등으로 '국가 공공기관 불모지'나 다름없게 된 점 등도 적극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지역난방공사, 공항공사, 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 대한체육회 등 50여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도는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농수산업과 에너지

관련 기관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전지 훈련 최적지라는 장점도 부각할 예정이다.

또 농수협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에 두도록 한 농수협법의 개정안 발의를 지역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등 정치권, 농수산 단체와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농수협은 규모나 파급효과가 큰 '알짜 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공항공사는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유치 대상으로 꼽아 시·도간 유치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전남에 부안국제공항이 있고, 향후 다양한 공항시설이 배치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전남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방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시·도간 실무적인 협의는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면서 "광주와 전남이 큰 틀에서 함께 가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핵심 공공기관 유치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 회의,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버스 승강장 산뜻하게 ~ 7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통장단원들이 기아 챔피언스필드 버스승강장과 그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 임동 행정복지센터는 3월 한달간 봄맞이 대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토론

#### 박미정 시의원 주최

광주시의회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은 7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가사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박미정(민주·동구 2) 시의원이 맡았고, 여성가족재단 김경례 대표이사와 김영신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했다. 또한, 정찬기 광주시 빛고을50+센터장, 구은정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조교수, 장세라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선희 전 참여자치21 대표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발제문을 통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장애인 돌봄, 요양 관련 제도 등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가정에서 수행하던 돌봄노동이 공적 영역으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하다"며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한 김영신 연구위원은 광주시가 시민에게 지원하는 주요 수당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하고, 수당제도의 사각지대에 분포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미정 의원은 "전통적인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광주형 가사수당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가 진행되는 만큼 시대에 알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일 기자 cki@

## "자원봉사단체-시민 연계 컨트롤 타워 강화해야"

### 강기정 시장, 20번째 월요대화...자원봉사 활성화 논의

광주시가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시민을 연결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등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6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20번째 '월요 대화' 행사를 열어 자원봉사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박종민 전 광주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사무처장은 이날 '광주시 자원봉사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제를 통해 "무보수·자발성·이타주의만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바라기 어려운 시대"라면서 "나 자신에게도, 지역사회에도 이익이 되는 봉사를 위해 행정과 자원봉사센터는 혁신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수많은 봉사단체, 봉사하고 싶은 시민을 연결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욱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대구시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 활동 현장은 광범위해졌다. 광역센터는 네트워크 연계협력을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역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강대석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회봉사회 재난분과위원장은 "전문화된 봉사조직 단체를 어떻게

연결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면서 "봉사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자원봉사자인 황예슬씨는 이날 자신이 속한 광주시 청소년의회가 직접 쓰레기봉투, 집게 등을 사서 공원을 청소했던 경험을 소개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원봉사 발전 방향에 많은 의견을 주신 만큼 행정과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채우겠다. 다만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인 '비공식자원봉사'를 어떻게 제도 속에 녹여낼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지방의회 '청렴·신뢰도 향상' 방안 논의

### 강정일 도의원 간담회 참석

강정일(더민주·광양 2) 전남도의회원은 최근 신안 자은도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10명의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청렴도 향상 방안과 신뢰받는 지방의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리특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원이 갖춰야 할 청렴도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청렴 마인드 향상을 통한 윤리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정일 위원장은 "전남도의회가 지방의원 청렴도 제고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깨끗한 지방의회,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남도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임기는 올해 6월 30일까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절판 판매중

이방인

알 카뮈

문어당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